

루마니아 중보기도 24시: 3 월을 마치며

빠체 보우어! (루마니아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눈 전쟁의 겨울을 보내고 이제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니 슬슬 기지개를 켜고 봄 맛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어지러진 마당을 정리하고 건축시작을 위한 준비와 여름 아 웃리치 손님 맛을 준비를 위해 까바나(야외 숙소)를 새로 단장 해야겠습니다.

네비우스 정책에 따른 공동체 자립을 위한 몸부림도 다시 용트림을 해야하는데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주는 한인 집사님을 소개받아서 6mx50m 한동에 4천 유로라고 해서 아버지께 계획서를 올리려고 둘째 하지와 세째 싸미를 불러 상의를 했습니다. 기도 편지를 쓸 때마다 자꾸 돈이야기를 하니까 짜증을 내시는 중보기도 식구들이 부담을 가지니까 제발 돈이야기는 그만하고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 소망을 주는 이야기만 쓰라고 역정을 내십니다. 하지만 선교지의 영적전투를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이며 아버지께 상 소하는 것이니 부담보다는 기도로 함께 레슬링 해 주시기를 중보합니다. 아버지께서 하 실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종은 그저 순종할 뿐이지요.

사실상 갯세마네 집시교회공동체는 네비우스 자립선교 정책은 올해부터 시작된 셈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유지하는 기본 재정을 엘레나 전도사와 9명의 6-11학년 임 원들과 아버지/어머니 학교 수료자들이 합심하여 잘 매꾸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달에 한번씩 오는 전기요금하고 수도세 그리고 매월 내는 인터넷 그리고 땀감 연료 비와 120명 어린이 사역비(생일선물/구역 동아리 활동/ 홈스쿨/ 토요일 주일 성경공부/ 금요 철야기도/ 찬양팀/ 교사회/ 챔피언쉽리그/ 월별행사/임마누엘 축구팀/교사세미나/ 교사훈련)와 상주하는 공동체 식구들 식비입니다.

9명의 공동체 아들 딸들이 정부에서 받는 학교 용돈 40레이(13,000원)에서 5레 이(1,600원)씩 각자가 인터넷비용을 보태기 위하여 세금을 걷어내야 하고 9학년 레베카 가 회계를 말합니다. 세례교인들은 매월 30레이(9,000원)씩 전기세 보태기 세금을 내야 하는데 큰아들 코스띠가 걷어 들이고 관리를 합니다. 한달에 500레이(115,000원)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엘레나 전도사가 교회헌금을 관리하고 모자라는 세금은 아빠 엄마(박 선교사 부부)의 특별 헌금으로 충당해서 네비우스 선교정책을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어 찌 보면 철모르는 자녀들에게 자립정책 실천을 맡긴다는 것은 잔인한 방법이겠고 앞을 보면 흥해바다요 뒤에서는 애굽군대들이 추격하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소망이 절

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닷물을 치라고 명하시고 육지처럼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1-2월을 지나오면서 용케도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은 멀어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온 가족이 함께 공동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일저녁 7-10시에 있는 교사회 댄 3개지역별 전도현황과 심방 토 주일날 아이들 데려오고 데려다주기와 구역 동아리 활동과 매일 저녁 8-10시까지 진행되는 홈스쿨을 점검하고 월별 행사와 반별 문제아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부활절 49가정 전도를 위한 사진코팅과 선물봉지 만들기 그리고 면장추천 86 빈민가정 식량지원 사역을 의논했습니다. 부활절 방학을 기하여 초 교파 4개교회 연합 체육대회를 상의했고 축구 배구 농구를 리그전으로 하며 상품준비는 티셔츠로 결정했습니다. 봄이 오면서 예배시간 변경을 오후 2시로 결정하였고 금요 철야기도 전에 준비하던 프로그램을 매일 저녁 30분씩 나누어서 준비하기를 결의했고 금요일은 설교와 반별 성경공부와 펠로우쉽 개발을 나누었습니다.

월요일 부터는 지도자 학교 숙소와 청소년 문화 센터 건축이 시작되면서 공동체 식구들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샤워실 보일러 물 데피는 나무가 떨어져서 집시들이 마차를 끌고 국도에 있는 가로수를 베어가고 난 자리에 떨어진 가지들을 주어 모아서 땀감을 충당하는 사역을 한주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집시들이 도둑질하며 나무를 훔쳐다니는 심정을 이해할것 만 같습니다. 비오렐 형제가 운전을 하고 큰아들 꼬스띠와 둘째 하지 셋째 싸미 여섯째 발리를 데리고 한주간 열심이 주어 날렸습니다. 나뭇가지 하나하나 주으면서 하나라도 더 주으면 여름에 아웃리치 올 손님들이 한번을 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수가 있다는 욕심으로 열심히 주어 실었습니다.

4월에 있을 사역은 부활절 행사와 면장추천 86빈민가정 식량지원 사업 그리고 3기 아버지 3차 스텝 준비기도회와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5월에는 2기 어머니 학교가 있고 생명회복 미생물 유기농법 세미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 사할린에서 사역하시는 김영원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한주간 이론 교육과 토질환경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될것입니다.

24시간 중보기도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섬김을 위한 영적 전투에 후방 병참지원 중보기도 식구들의 힘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루마니아 갯세마네 집시교회공동체에서 박창수 심은식 선교사 드림



3월 10일 아버지학교 1차 스텐 준비기도회



3월 24일 아버지학교 2차 스텐 준비기도회



딸감구하기:꼬스띠,싸미,발리,비오렐,하지



딸감 손질하기: 박선교사, 발



지도자 학교/청소년 문화센터 건축: 비오렐 형제